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Ⅰ)

— 가구사용 의식 및 거주자 평가 —

A study on Evaluation of living room by Furniture Usage(Part Ⅰ)

— Thoughts of Furniture Usage and Evaluation of the deweller —

이 명 옥*
Lee, Myung OK
안 옥 희**
An, Ok Hee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discusing how to select, arrange and evaluate furniture and how to estimate the space of the living room.

In this Paper, the size of the living room was manipulated in 3 - ways;66 - 95.7 ㎡, 99 - 128.7 ㎡ and more of 132 ㎡.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subjects in the larger size select or arrange furniture more diversely and show the higher satisfactory level for the arrangement of furniture than those in the smaller size do.

2) The subjects in the smaller size shows the conflict between their plan for the furniture - arrangement and their evaluation for the arranged furniture.

3) The variables affecting the estimation of the living room are the arrangement, the color, the number and the design of furniture.

4) Five dimensions(activity, evaluation luxry, plenty and openness)are extracted by factor analysis.

Ⅰ. 序 論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住生活 분야에서도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더우기 경제가 안정기로 履行되어 가면서 인간의 행동이 다양화된 오늘날에는 공간에 대한 인간의 認識要求가 고도화 되고 개성화 되어감에 따라 인간적인 정서를 밑바탕으로 하여 質的으로 居住性을 높이는 것은

* 정회원, 영남대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 정회원,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설계자에게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즉 인간의 행동과 공간을 대응 시키면서 공간 계획의 원리를 시도하는 것은 실내 계획과 함께 중요한 촛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이 공간을 지각할 때 중요한 요소는 視環境이며 이것은 인간과 建築物과의 相互作用을 심리적인 면에서 만족하게 한다. 그리고 주택내의 공간은 가구라는 媒介體를 통해서 각기 목적대로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또한 가구는 실내분위기를 구성하는 裝備的 요소 중 하나로 視環境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1]. 따라서 가구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여러측면에서 연구[2)-4)]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家具使用行態에 따른 空間評價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사용을 중심으로 거실공간 평가를 시도하고저 한다.

공간평가에 있어 심리적인 측면은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潛在的 목적까지 포함)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평가자에 따른 개인차도 많이 나타나므로, 주택내의 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거실공간을 평가대상으로 택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대단위의 共同 주택형태가 보급됨에 따라 거실공간은 劃一化 되었고 따라서 居住者의 개성이나 가치관은 가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質的慾求를 충족시키고저 함으로 주거공간내에서 가구사용은 다양한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간구성이 독립주택보다 획일적인 아파트 거실의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또한 심리평가는 주택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과 실내분위기를 결정하는 主體라는 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거실사용에서 나타나는 가구에 대한 居住者意識과 거실공간 평가라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實證적인 연구로 종래 감각적으로 만족시킨 주택내 거실공간의 視環境要素인 가구가 공간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定量化하고 심리적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가구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것에 의해 주택계획에서 거실공간 구성의 이론적인 수법으로 설계단계에서의 참고자료, 판단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저 하는데 연구의 意義를 가진다.

Ⅱ. 論理的 背景

1. 家具의 特性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사전[5)]에서 찾아보면 ① 집안살림살이에 쓰이는 기구·집물·가재 ② 목물을 주로해서 만든 세간·책장·의자·찬장의 뜻을 살펴보면 집을 뜻하는 家와 갖추다·그릇·완비하다·필요하다의 뜻을 가진 具이다. 즉 집에 갖추어 두는 것이라는 의미인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구라는 말은 고정적인 건축에 대하여 움직일 수 있는 도구, 또는 방을 설비(Furnish)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6)]

이러한 가구는 用途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주로 가구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며 이동, 人間工學, 형태, 재료, 공간별 분류 방법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실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행위에 중점을 두어 가구를 두가지로 나누었다. 즉 인체를 지지하는 가구인 지지용 가구와 벽면을 구성하는 벽면가구로 나누어 논의하고저 한다.

2. 空間의 心理評價

주거는 매우 다양한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은 자신의 주거에 그들 특유의 이미지를 부여한다[8)]. 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무엇인가의 制約을 받고 또 사람은 그것에 적응해 나가면서 생활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을 평가하는 內部要因으로는 주로 빛, 색채, 형태, 질감 그리고 가구량, 배치라는 가구의 요인동으로 특히, 가구는 건축공간에서 친밀도와 관련되며 개방감, 폐쇄감의 容積感이 空間知覺 심리에 영향을 준다.

현재 공간에 대한 각 요인별 이미지를 평가하는

數量化하는 방법이 건축계획분야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공간심리 평가의 연구는 공간이 갖는 심리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으로 가장 유효한 공간의 심리적 평가로 SD(Semantic Differential)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SD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田中[9]에 의한 실험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고 이를 이용한 空間心理評價를 건축계획 분야에서 사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SD법을 통한 실내공간 평가를 측정하고저 한다.

Ⅲ. 硏究方法

1. 조사방법

1) 사전조사

먼저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의 설정을 위해 1991년 4월 27일 -1991년 5월4일(8일간)에 걸쳐 사전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구시 북구 소재지인 복현 주공 아파트 22평에 거주하는 63가구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는 연구의 성격상 거실 공간이 마련 되어야 하며, 전국민중 가장 많은 계층의 住生活을 包括할 수 있는 대중 주택의 개념인 국민주택규모[10]에서 실시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 10명이 2인 1조로 편성되어 사전에 양해를 구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주부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난후 거실 가구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다.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료에서 신뢰도 검정을 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0.7202로 나타났고 거실공간 평가의 용어를 결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계 41對應의 형용사 중 인자부하량이나 공통성이 낮은 항목, 평가하기 곤란한 항목, 같은 評價傾向을 가진 항목등을 생략하여 계 29對應을 선택하여 다시 2차 분석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13對應의 형용사를 결정하였다. 또한 評價段階는 7단계 兩極 尺度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를 통해 도구를 수정 補完하여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의 조사대상은 대구시 전체區 아파트의 거실이며, 조사 대상자는 주부로 한정하였다. 본조사의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표3-1).

〈표 3-1〉 조사개요

조사지역 및 대상	대구시 전체(동구, 중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 임의선정)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조사시기	1991년 6월 15일 ~ 8월 16일(약2개월)
조사방법	설문조사방법(직접방문조사)
조사호수	20~90평(104) 30~39평(100)40평이상(90)

2. 조사내용

1) 대상 가구의 일반사항(가족구성,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거주년수 등)
2) 거실 사용에 대한 특성(기거양식, 거실사용시간, 생활행위, 만족도)
3) 거실내의 가구사용 의식 및 만족도
4) 거실내 가구의 공간평가

3. 자료처리

조사된 자료 통계 분석은 SPSS 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X^2-검증, 일원변량 분석(One-way-Anova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상관관계(Correlation)등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Ⅳ. 硏究結果 및 論議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를 평수(이하 20~29평 : 20평형, 30~39평 : 30평형, 40평이상 : 40평형으로 칭함)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조사 대상의 家口의 특성을 알아보면 가족수는 평수가 넓을수록 증가하며, 전체 평균 가족수는 4.3인으로 나타났으며 평수에

상관없이 핵가족이 85%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현세대 핵가족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주부의 연령은 평수가 클수록 증가하며 전체적인 평균 연령은 43세로 나타났다.

40대 주부인 경우, 주거생활에 익숙한 시기로 주거 소유 상태도 자가인 경우가 많고, 주거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본 조사

〈표 4-1〉 일반변인에 따른 평수와의 차이검증

변 인(구분)	평 균 (빈 도)	F값 scheffe test	
가족수 2인	1.63(52)		
3인	1.90(132)	3.84**	
4인	2.01(78)		
5인	2.40(27)		
6인 이상	2.60(5)		
주부 30세 이하	1.44(29)		A
연령 31~40세	1.55(81)		A
41~50세	2.19(117)	19.2***	B
51세이상	2.22(67)		B
남편 전문 기술직	2.06(62)		A
직업 행정,관리직	1.75(53)		
사무,관리직	2.08(122)	5.47***	A
판매,서비스	2.23(33)		A
기타	1.00(24)		B
월평균 60만원 이하	1.15(19)		A A
소 득 60~80 만원	1.40(37)		A A
80~100만원	1.78(53)		B A
100~120만원	1.76(21)	21.03***	B A
120~150만원	2.20(35)		B B
150~200만원	2.20(60)		B B
200만원 이상	2.82(35)		C C
기거 입 식	1.93(109)		A
양식 절충식	2.09(154)	13.89***	A
좌 식	1.29(31)		B
주부 1~4시간	2.06(96)		A
거실 5~8시간	2.01(123)	4.74**	A
사용 9~10시간	2.00(23)		
시간 10시간이상	1.57(52)		B

* P<0.05 ** P<0.01 *** P<0.001
A, B, C 다른문자 : P<0.05수준의 유의의 차가 있음.

외 대상자로 적당한 연령층으로 보여진다.

주부의 학력을 보면 평수와 상관없이 고졸이상이 80%이상을 차지하므로 조사도구(설문지)작성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전체 평균 148만원으로 현재 도시가계 월평균 소득 110만원과 비교해 볼때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평수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가구사용의 形態나 空間評價에 다양성을 內包할 것으로 추측한다. 기거양식은 절충식이 가장 많으며 이는 입식가구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바닥에 앉는 生活 樣式을 竝行한다는 사실로 볼때 가구사용과 住居樣式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구체화 하기 위해 평수와 일반변인과 일원변량분석를 하였다 (표 4-1).

표 4-1에 의하면 가족수가 많을수록 평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축도인 인구밀도를 생각할 때 가족수가 많을수록 평수가 크다는 것은 건전한 주거환경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주부연령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츰 경제적인 안정기가 됨을 알 수 있다. 남편 직업은 전문직, 사무직 및 관리직, 판매직의 순으로 평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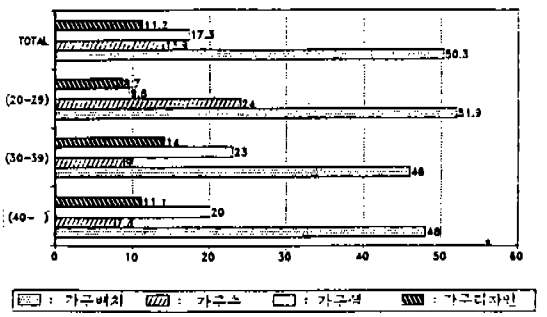
여기서 판매직에서는 주로 개인상가를 하는 경우로 월평균 소득도 높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류에 속하므로 거주평수도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家口의 월평균 소득에서는 소득이 높을 수록 평수가 넓게 나타났다. 기거양식에 있어서는 입식은 평수가 작은 평수보다 큰 평수일때 더 많았고 절충식은 평수가 클수록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입식생활이 좌식생활보다 가구사용이 많이 요구되므로 큰 평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실측을 통해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 주부의 거실사용시간에서는 주부들이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평수는 작게 나타났다. 이는 평수가 넓은 경우에서는 공간 활용이 다양하

나, 작은 평수에서는 공간의 단순화로 거실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은 평수의 거실공간 계획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2. 居室에 대한 特性

1) 거실空間 評價의 영향 요인

거실의 공간평가에 미치는 室內構成 要素를 조사한 결과, 이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要素를 그림 4-1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 공간분위기 평가의 구성요소

여기에서 볼 때 가구의 諸要素(配置, 數, 色, 디자인)가 거실공간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단독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가구는 單獨效果로서 거실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國嶋[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획일화된 오늘날의 아파트 거실의 기능을 具體化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구 계획이 요구되며 가족의 거실사용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가구사용이 필요하다.

2) 거실에서의 生活行爲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生活行爲에 대해 分析으로 사용된 내용은 27項目으로 사전조사를 거쳐 표 4-2와 같이 12개 項目으로 정리하여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먼저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機能分化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行을 단순화 시키는 배리맥스(Varimax)回轉方法을 사용하였고 그 분석결과, Kaiser의 기준에 따라 eigen value가 1.00이상인 5개 요인을 採擇하였다.

〈표 4-2〉 거실 생활 행위의 주요인 분석

요인	평가항목	요인부하량 Ⅰ	Ⅱ	Ⅲ	Ⅳ	Ⅴ	공통성	요인명명
Ⅰ	가족모임	.917	-.051	-.103	.078	.041	.863	가족
	가족회의	.896	-.036	-.039	.015	.071	.821	단란
	가계부 정리	.885	.018	.017	.008	-.077	.789	
	독 서	.879	-.054	.043	-.020	.010	.778	
Ⅱ	어린이 놀이	-.016	.859	.027	-.120	.099	.764	육아
	육 아	-.072	.806	.182	.173	.005	.718	
Ⅲ	가장의 취미생활	-.063	.089	.828	.116	-.124	.726	취미
	주부의 취미생활	.011	.107	.777	-.027	.227	.669	생활
Ⅳ	TV시청	.017	.095	-.058	.812	-.003	.673	문화
	전 화	.101	-.066	.156	.762	.118	.634	생활
Ⅴ	예우할 손님접대	.009	-.026	.072	-.051	.833	.704	접대
	친한 친구접대	.013	.114	.004	.150	.659	.470	행위
	고 유 치	3.27	1.87	1.25	1.13	1.07		
	설명변량(%)	27.3	15.6	10.5	9.5	8.9		
	누적변량(%)	27.3	42.9	53.4	62.8	71.8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으로 분류 되었으며 전체 설명변량은 71.8%으로 7할을 넘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편성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실에서 가장 많이 행하여지는 것은 「가족단란」이며 그 다음으로 「육아」「취미생활」「문화생활」「접대행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거실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란행위[12]라 말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도 이와 일치하고 있다.

평수에 따른 거실 생활행위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표4-3).

〈표 4-3〉 거실생활 행위요인에 따른 평수간의 차이

변 인 (요 인)	20평형 (104) 평 균	30평형 (100) 평 균	40평형 (90) 평 균	F 값	Scheffe - test (1)	(2)	(3)
가족단란	2.44	5.62	5.60	79.3***	A	B	B
육 아	2.69	2.37	2.33	7.92***	A	B	B
취미생활	2.85	2.62	2.51	5.54***	A		B
문화생활	3.58	3.72	3.75	2.29			
접대행위	3.48	3.47	3.43	0.13			

(1) : 20~29평, (2) : 30~39평, (3) : 40평이상

그 결과를 볼때 「가족단란」행위 이외의 행위는 평수가 비교적 작은 20평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평수일수록 거실사용 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의 생활행위가 거실에서 이루어지며, 거실사용 시간도 많은 작은 평수의 거실계획시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간이 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거실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한편, 거실분위기 만족도에 대해 고찰해 보면 거실분위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공간 그 자체의 크기보다는 室을 구성하는 諸要素들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무조건 큰 평수가 아닌 居住가족에게 적당한 評價가 요구된다(표4-4).

그리고 거실분위기 만족도와 가구에 관한 여러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식면(예를들어 구입시 의견결정, 고려사항등)보다는 가구자체에 대한 평가면(예를들어 관심도, 편리성, 각요소의 만족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家具配置의 만족도와는 다른 변인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室內構成要素(여기에서는 가구)를 잘 配置함으로써 거실분위기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4〉 거실공간 만족도와 평수와의 차이

변 인	만족도(빈도)	평균	F값 Scheffe - test
거실 분위기 만족도	만족한다 (189)	2.30	A
	보통이다 (15)	1.94	7.18*** B
	불만족이다(34)	2.29	A

3. 居室家具 使用에 대한 居住者 意識

1) 家具配置

먼저 家具配置는 평수가 클수록 가족위주의 가구배치를 하고 있으며 가구배치시 직접적인 계기는 큰 평수일수록 기분에 따라 자주 가구배치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배치의 만족도에서는 가구배치 만족도가 높을수록 평수는 크며 이는 큰 평수일수록 자주 가구배치를 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2) 거실가구의 량, 높이 및 크기

가구량과 높이에 대한 느낌은 각 평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체로 평수가 작을수록 가구량이 많고 가구높이가 낮다고 느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가구크기에 대해서는 평수가 작을때 가구크기도 작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작은 평수에서는 가구의 크기나 높이가 큰 평수에 비해 작거나 낮은 가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는 實測調査로 입증되어야 하는 사실이다.

3) 거실가구의 편리성, 관심도 및 디자인

거실가구 디자인은 공간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과거와는 달리 색상, 모양이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거실 가구색상에 대한 느낌과 가구모양이나 形態에 대한 만족도에서 각 평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수가 클수록 가구모양이나 형태 만족도가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수 크기가 작은 평수에 비해 다소 가구의 모양이나 색상이 화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큰 평수의 居住者가 거실가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4) 거실가구 구입시 결정위주, 가구구입시 고려사항

가구구입 결정자는 평수가 클수록 「가족전체」의견을 중시하며, 평수가 작을수록 「주부」중심의 가구구입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4-5〉 거실 가구사용에 대한 거주자 의식

변인		구분(빈도)	평균	F값 Scheffé-test
가구	가구 결정자	남편 (19)	1.94	2.16
		주부 (100)	1.83	
		부부 (28)	1.78	
		가족전체 (147)	2.06	
배치	가구 배치 변화 요인	계절변화 (61)	1.91	8.23*** A / B
		이사할때 (84)	1.84	
		가구구입시(87)	2.06	
		기분변화 (46)	2.28	
		잡지·사진(16)	1.06	
	배치의 만족도	만족한다 (109)	2.18	7.31*** A / B / B
		보통이다 (137)	1.81	
		불만족이다(48)	1.81	
가구량 높이 크기	가구량 느낌	많다 (38)	1.71	2.18
		적당하다 (208)	2.00	
		적다 (48)	1.91	
	가구 높이의 느낌	높다 (53)	1.77	2.91
		적당하다 (211)	2.02	
		낮다 (37)	1.76	
	가구 크기의 느낌	크다 (44)	1.72	4.52*
		적당하다 (223)	2.03	
		작다 (27)	1.66	
가구 편리성	거실 가구의 편리성	그렇다 (190)	2.03	3.17* A / B
		보통이다 (83)	1.77	
		그렇지않다(21)	1.90	
관심도	거실 가구의 관심도	많다 (158)	1.93	0.82
		보통이다 (132)	2.01	
		적다 (33)	1.81	
디자인	가구 색상의 느낌	만족하다 (127)	2.04	2.94
		보통이다 (117)	1.81	
		불만족이다(50)	2.04	
	모양 형태 만족도	만족한다 (103)	2.06	2.48
		보통이다 (132)	1.93	
		불만족이다(57)	1.77	
가구 구입시 결정 위주	거실 가구 구입시 결정위주	남편 (31)	2.03	3.75** A / A / B
		부부 (66)	1.90	
		가족전체 (78)	1.93	
		친구나친지(20)	2.01	
	가구 구입시 고려 사항	실용성 (60)	1.85	3.57** A / B
		경제성 (16)	1.68	
		이동성 (11)	2.00	
		유행성 (3)	2.66	
		관리성 (3)	2.00	
		디자인 (69)	2.20	
		편리성 (92)	2.03	
		조화성 (40)	1.52	

가구구입시 고려사항은 각 평수별로 그 고려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에는 디자인을 고려하는 집단과 조화성에 중점을 두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어 평수가 클수록 디자인을 많이 보고, 평수가 작을수록 조화성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평수가 작을 경우 공간의 적절

한 활용을 위해 공간적인 여건과 기존에 있는 가구와의 Scale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가구 자체의 디자인보다는 조화성에 비중을 두는 것이라 생각된다. 평수에 상관없이 고려사항의 順位는 便利性 -디자인-實用性-調和性-經濟性-移動性-流行性-管理性으론 가구는 일단 편리해야 된다는 의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는 가구배치의 고려사항과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V. 居室 空間評價에 관한 고찰

1.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먼저 각 평가항목에 대해 7-1점으로 주어진 점수에서 얻어진 득점(SD득점)으로 표준편차를 算出하고 評價項目間의 相關行列을 구하여 요인구조를 결정하였다.(표5-1)

〈표 5-1〉 공간분위기 평가의 주요인 분석

요인	평가항목	요인부하량					공통성	요인명명
		Ⅰ	Ⅱ	Ⅲ	Ⅳ	Ⅴ		
Ⅰ	편리한	.734	.160	-.064	.127	.138	.604	
	자유스런	.729	-.117	-.178	.240	.236	.691	활동성
	단란한	.660	.357	-.150	.128	.124	.618	(Activity)
	활동적인	.579	.144	.458	-.227	-.130	.635	
Ⅱ	계획적인	.114	.776	.156	.094	-.174	.680	평가성
	완전한	.093	.754	.066	.113	.279	.674	(Evaluation)
	쾌적한	.386	.523	-.289	.302	.191	.635	
Ⅲ	호화스런	-.045	-.086	.764	.201	.044	.636	호화성
	귀족적인	-.215	.231	.744	.159	.038	.681	(Luxury)
Ⅳ	매력있는	.112	.072	.262	.746	-.047	.646	풍부성
	부드러운	.216	.253	.098	.658	.091	.680	(Plenty)
Ⅴ	넓은	.012	.132	-.031	.323	.761	.703	개방성
	높은	-.204	.024	-.105	.365	-.732	.724	(Openness)
	고유치	3.20	1.90	1.27	1.11	1.02		
	설명변량(%)	24.6	14.6	9.8	8.5	7.8		
	누적변량(%)	24.6	39.2	49.0	57.5	65.3		

요인의 順位를 보면 제1,2요인으로 활동성, 평가성요인이 算出되었는데, 이들 요인은 공간에서 구해지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osgood[13]의 의미공간 구조와 같으며 가구를 중심으로 실내분위기를 평가한 國嶋[11]와 田中[9]의 보고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실분위기 평가요인과 각 평수와의 차이 검증(표5-2)을 한 결과에 의하면 활동성, 평가성,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들 요인은 요인이 평수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이 상위 2위까지를 차지하여 공간평가에는 항상 나타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평수가 클수록 풍부성, 개방성요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수가 크면 자연히 거실공간 자체가 넓어지므로 가구나 여러 시설물이 배치되어도 작은 평수보다는 공간에 대해 넓다든가 높다라고 하는 개방성 평가가 더욱 강할 것이며, 작은 평수에 비해 큰 평수에 室內 裝備的要因을 많이 갖추고 있으리라 추측되므로 풍부성 평가가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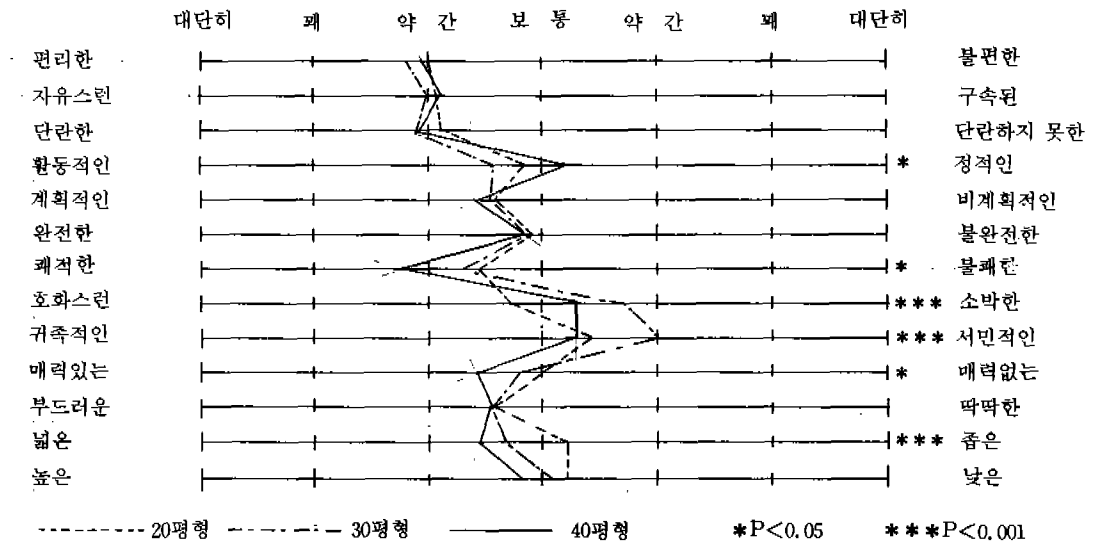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5-2〉 거실분위기 평가요인에 따른 평수의 차이

변 인 (요 인)	20평형 (104) 평 균	30평형 (100) 평 균	40평형 (90) 평 균	F 값	Scheffe - test (1)	(2)	(3)
활동성	19.0	19.7	18.7	2.20			
평가성	13.3	13.4	13.9	1.82			
호화성	7.73	6.37	7.52	12.88***	A	A	B
풍부성	8.38	8.87	9.01	3.19*			
개방성	7.55	8.13	8.64	15.27***	A	B	C

2. 평균 SD득점에 따른 분석

각 평가항목의 평균 SD 득점을 이미지 Profile로 그려 각평수의 이미지 특성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행한 결과를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그림5-1〉각평수별 이미지 Profile

그림 5—1에서 보면 활동성에 속하는 평가항목은 30평형에서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40평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거실이 무조건 넓다고 해서 활동적인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너무 좁으면 활동성 평가가 낮아 지므로 그 가족에 맞는 적정넓이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

호화성 요인의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價値의 基準設定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여겨지며, 또 본 연구에서의 평가대상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만으로 비교대상이 없고,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더우기 이 요인은 거주면적 보다 가구디자인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평수간의 특성파악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리라 보여진다.

풍부성에 속하는 평가항목 중에서「매력있는」에서는 평가가 높을수록 평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방성에 있어서는「넓은」이라는 공간평가가 높을수록 평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좁은 평수에서는 평가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방성 평가가 거실에 있는 施設物보다는 거실의 면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3) 거실공간 평가와 거실분위기 만족도와의 관계

거실공간 평가 요인이 거실분위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3).

〈표 5—3〉 거실공간 평가와 거실분위기 만족도의 관계

변 인 (요 인)	거실분위기 만족도			
	전 체 B(β)	20~29평 B(β)	30~39평 B(β)	40평이상B(β)
활 동 성	.016(.060)	.035(.125)	.018(.036)	-.024(-.087)
평 가 성	-.043(-.116)	-.061(-.161)	-.028(-.080)	.001(.001)
호 화 성	-.021(-.052)	-.040(-.100)	-.065(-.150)	-.028(-.013)
풍 부 성	-.156(-.335)***	-.121(-.252)*	-.190(-.425)***	-.129(-.289)*
개 방 성	-.029(-.049)	-.015(-.022)	.020(.036)	.023(.037)
회귀상수	4.737	0.537	4.830	3.797
Abjsted R^2	0.153	0.118	0.227	0.044
F 값	11.602***	2.629*	6.819***	1.810

*P< .01 **P< .001

표 5—3에 의하면 평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평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 거실분위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요인4 풍부성으로 나타났으며, 풍부성요인의 공간평가가 낮을수록 거실분위기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평수별로 보면 평수에 상관없이 거실분위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요인4 풍부성으로, 전체 대상과 같은 경향이다. 회귀모형에서 이러한 종속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전체 평수인 경우 15.3% 20평형 11.8%, 30평형 22.7%, 40평형에서는 4.4%로 다른 평수에 비해 40평형에 있어 비교적 설명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풍부성 요인에서「부드러운」에 대한 평가(참고 그림5—1)가 낮을수록 거실분위기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자.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라 하면 좋은 이미지로 받아 들여지며 따라서 분위기 만족도가 높으리라 추측되는데 본 연구결과는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부드러움」이란 어떤 것인가. 부드러움이란 주로 색상, 재질, 디자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느낌으로 색상이 온화하고 재질이 부드럽고 디자인에 있어 곡선을 많이 사용한 형태라 짐작된다.

이런 색상, 재질, 디자인을 內包하고 있는 室內裝備的 要因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구이며 이런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적을수록 풍부성요인에 대한 평가는 낮아지리라 추측할 수 있다. 즉 가구사용이 적으면, 또는 가구의 키가 낮으면 빈공간이 많이 생겨 딱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간평가에서는 무엇인가가 꽉 들어 찬 느낌보다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편이 만족감을 더해주며[9] 이런 여유는 빈공간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풍부성에서 「부드러운」평가가 낮을수록 여유는 빈공간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다. 풍부성에서「부드러운」평가가 낮을수록 餘裕空間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餘白空間의 효과로 인해 분위기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한다고 생각된다.

Ⅵ. 結　　論

본 연구는 쾌적한 視環境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APT 거실을 중심으로 가구에 대하여 그 사용의식과 居住者들의 공간평가에 대해 檢討하였고, 이를 평수별로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거실공간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평수에 상관없이 가구배치, 가구색, 가구수, 가구 디자인의 順으로 가구가 單獨要因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아파트 거실를 다양화, 구체화, 융통성 있게 만들기 위한 家具計劃이 절실히 요청된다.

2) 아파트 거실내 생활행위를 12項目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단란, 육아, 취미생활, 문화생활, 접대행위로 5개 요인이 算出되었다. 평수별로는 가족 단란, 육아, 취미생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평수가 클수록 가족단란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는 평수가 작을 경우 공간확보가 적으므로 가족단란 행위 이외 많은 행위가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활 행위를 고려한 가구사용이 필요하리라 본다.

3) 가구사용 의식에서 家具配置 行爲, 가구배치 만족도, 가구 Scale의 느낌, 가구의 편리성, 가구구입의 형태에서 평수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평수가 클수록 가구배치 만족도가 높고, 가구배치의 변화가 다양했다. 작은 평수일수록 가구의 Scale이 대체로 크다고 느끼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가구구입시 낮고 작은 가구구입으로 가구량이 적고 높이가 낮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 작은 평수에서는 가구사용 의식이 混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구입시 고려사항에서 평수가 작은 경우 편리성이 가장 우선이고 평수가 클수록 디자인 우선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로 편리성－디자인－실용성－조화성－경제성－이동성－유행성－관리성의 순서로 가구는 일단 편리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다.

4) 13형용사 對應(7段階)SD법으로 공간평가를 행하여 5요인(활동성, 평가성, 호화성, 풍부성, 개방성)이 算出되었고 호화성, 풍부성, 개방성요인은 평수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거실분위기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실공간 평가요인은 평수에 상관없이 「풍부성」요인으로 나타났다. 「풍부성」요인이 낮을수록 여유공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분위기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흥미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거실과 가구에 대한 의식적인 측면을 다룬 것으로 가구사용 의식의 파악과 공간평가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보다나은 空間計劃의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가구사용 의식 및 거주자 평가에서 얻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객관성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가구의 배치, 량 디자인적 諸要素를 중심으로 한 實測硏究가 진행되고 있다.

參 考 文 獻

1) 國嶋道子, 染瀨度子(1985), 室內構成材の雰圍氣への影響に關する硏究(2)－室內裝備的要因につ-人間工學, Vol. 21, No. 1, pp.47－53.

2) Canter Weols(1970), architectural psychology and school design, scottish educational studies.

3) Margaret Mead(1967), conference Behavior, Columbia University Forum, summer, pp. 20-25.

4) 이경희, 이주영, 정재영(1978), 가구이용면에서 본 주공간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15, pp90, pp89.

5) 이희승(1990),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6) 박 홍(1990), 실내디자인론, 기문당, pp210.

7) David Canter, Psychology and the built Environment, Architectural pp48.

8) Sam Davis 외 1인(1977), The Form of Housing(Interior-Accomodating Diversity) VNR pp.194.

9) 田中完子(1990), 住宅居間における裝備的要因としての家具が居住性評價に及ぼす影響に關する硏究, 奈良女子大學學位論文, pp.41-46.

10) 대한주택공사(1986), 주택핸드북.

11) 國嶋道子(1985), 室內視環境要素の居住性評價に及ぼす影響, 奈良女子大學, 學位論文.

12) 조성기, 김일진(1985), 주거학, 동명사.

13) Osgood, C.E.(1962), "Studies on the Generality of affective meaning system, "American Psychologist", Vol, 17, pp.10-28.